

여소야대 국회 ‘패스트트랙’ 새 변수 부상

〈신속 처리안건〉

야, 운영위 등 3곳 ‘안정 과반’... 단독 법안 처리 가능

여 ‘법안소위 여야 동수 구성’으로 견제... 기싸움 예고

‘상시 청문회법’ 재발의 주목

제20대 국회가 정식 개원한 가운데 여소야대 구도가 각 상임위원회에도 반영되면서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이 ‘안정 과반’을 확보하면서 법안 단독처리 구조를 갖추자 새누리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견제하겠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현재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된 상임위는 운영위·산업자원통상위·환경노동위 등 모두 3곳이다. 위원 정수가 28명인 운영위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배치됐다. 더민주·국민의당과 야당 성향인 비교섭단체 의원을 합하면 모두 17명으로, 전체의 5분의 3(16.8명)을 넘어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상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단독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총 330일이 지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총 30명인 산자위도 새누리당과 더민주 의원 각 12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야당 비율이 정확히 5분의 3(18명)을 채웠고, 환노위(총 16명)도 더민주 7명, 새누리 6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

단체 1명이어서 패스트트랙 허용 의원수(9.6명)를 살짝 넘겼다. 하지만, 새누리당에게 ‘안정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는 안을 관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야당 위원 수가 5분의 3이 넘는 상임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으나 의석수 부족으로 3개 상임위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

하자 법안소위를 견제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곳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패스트트랙을 걸 수 있지만 정국이 경색될수록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안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데다 복수의 법안소위가 운영되는 상임위가 3개에서 7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여야간 이해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소위 단계부터 막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은 전날 여야 동수 법안소위로 인해 ‘캐스

팅보트’ 역할이 사라진 데 대해 “공정하지 않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야당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나 법사위에서 여야가 대립해도 법정시한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므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민주 원내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운영위 등 3곳은 여당 합의가 안 돼도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즉각(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상임위에 한두 곳에선 패스트트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정 “잘 해 봅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 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유 부총리, 새누리당 김광림. /연합뉴스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검찰 출석... 국민의당 논란 차단 총력

국민의당은 16일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논란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현역 의원과 당직자 등 당 관계자로서는 첫번째 검찰 소환이다. 왕 전 부총장은 선거공보물 제작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른다. 지시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환에 앞서 국민의당은 전날 당으로의 자금 유입이 전혀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날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사격을 계속했다.

당내 자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자금 흐름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브랜드 호텔이 자신들이 일하고 받은 용역의 대가인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라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의 공천 논란에 대해서도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절차 면에서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고 변론했다.

박지현 원내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염려하시는 리베이트, 당으로 유입된 돈은 없다”며 “검찰 수사에 협력도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의 이미지 손실과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아주 크게 혼났다”며 “떨어지는 지지율이 반전될 계기가 안 보여서 참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금권선거가 확인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당정청 회의

돌연 ‘없던 일로’

17일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16일 오후 돌연 취소됐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애초 17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기업구조조정, 맞춤형 보육 문제 등 시급한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회의가 취소됐다고 여러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16일 오전 잡혔지만, 만나 절도 지나지 않아 취소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 때문일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박영선, 제2 옥시사태 방지 ‘징벌적 배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가슴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 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



를 채택하도록 했다. 또 원활한 증거 조사를 위해 법원에 의한 직권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 제출 명령의 요건은 완화하는 동시에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성질, 빈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참작하도록 했다.

원혜영, 회의 불참 많은 의원 세비 삭감법 추진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의원들의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그 회기의 회의비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원 세비를 심사·결정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세비를 국가가 스스로 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쌓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원 의원은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 세비혁신법안은 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선거철 ‘홍보문자 공해’ 차단법 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6일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쏟아지는 홍보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1회 20명 이하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낼 때만 문자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휴대전화기 아닌 기기나 ‘자동 동보통신’(한꺼번에 무제한의 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술)을 사용



할 때는 수신 대상자가 몇 명이든 15회까지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맞춤형 보육 시행되면 보육난민 속출”

더민주 84명, 시행 연기·재검토 결의안 발의

남인순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4명은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을 유보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의 견을 수렴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 자녀(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고, 보육료 지원액도 기존의 80%로 삭감돼 보육현장에 혼선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가 ‘예산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폐원이 속출해 보육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일을 서류상으로 밟힐 수 없는 저소득층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벌써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종일반 이용을 위해 유임·탈임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울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검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2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북구 임동 주택 건물27평 토지48평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예정지역. 투자최적 ▶ 감정가 최저가9천8백만원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근린주택 건물7평 토지54평 코너위치 1층점포,2층주방 ▶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1억5천3백만원
- 광산구 월계동 6층상가건물중 6층 건물63평 토지18평 사무실,상가 ▶ 감정가 2억4천 최저가 1억8백(감정가의 45%)
- 북구 매곡동 4층근린시설 대지224평 대지382평 학원,병원추천 ▶ 감정가 12억2천 최저가 8억5천만원
- 서구 화정동 가스충전소 금호월드인근 건물42평 토지301평 투자가치우수 ▶ 최저가 17억1천만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9평 토지 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담양읍 삼관리 전원주택마을입구 도로점 인야. 위치좋은 토지2730평 전원주택지 개발추천 ▶ 최저가 4억6천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12평 마을입구 도로점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최고의 명분! 최고의 투자처!

미래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무엇일까? 개발지란 무엇이고, 왜 개발지가 매력인가? 토지 투자의 성공 노하우에 대해 공개합니다.

부동산 토지 재테크 무료 세미나

강의 내용	◆ 토지시장 현황과 전망 ◆ 아파트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 ◆ 미래가치 뛰어난 투자 유망지역 ◆ 최고의 명분 있는 유망지 ◆ 개발지에 성공 투자법 ◆ 최고의 물건지 고르는 법 ◆ 최고의 값이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지역 직접 공개
강사	◆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 현지 실전 전문가

일시: 6월 20일(월) 1부 오후 2시~4시 / 2부 오후 7시~9시
장소: 광주시 남구 월산로 154 가람빌딩9층 (돌고개역)

부동산토지재테크 상담소

예약전화 ☎ 062)576-7955